韓 · 中학자, '원효'에 주목하다

동국대 · 인민대 등 '원효와 동아시아' 세미나

원효 著 삼매경론 유통사부터
징관과 관계 · 일념사상 연원까지
원효 저술 · 사상 등 영향력 조명
5, 6월 韓 · 日서 세미나 이어져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국 학자들이 참여해 원효 스님의 저술과 사상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과 중국 인민대학, 민족대는 3월 24~25일 인민대서 '원효와 동아시아불교'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원효 스님의 저술과 사상이 신라와 중국 불교에 미쳤던 영향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김천학 동국대 교수는 '원효 〈금강삼매경론〉(이하 〈삼매경론〉)의 동양시아 전파'에서 원효 스님의 저술한 〈삼매경론〉이 한 · 중 · 일 삼국에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추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삼매경론〉은 원효 스님이 저술했지만, 의천의 목록과 1244년 고려대장경에 입장(入藏)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일본에서는 743~768년 26회의 필사 기록이 확인된다.

〈삼매경록〉이 이른 시기 인용되는 곳은 중국이다. 특히 종밀은 〈원각경〉 관련 저술에서 원효의 〈삼매경론〉을 다수 인용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원각경〉 주석 상의 관심이 교선일치 및 남북선종의 종합적 형태를 찾으려는 데 있다는 해석이 있는데, '무상법'에 대한 해명도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매경론〉의 중국 전파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신라 도륜의 〈유가론기〉 인용을 인정한다면 8세기 초 전래됐을 것"이라며 "〈송고승전〉의 설화를 믿는다면 원효의 〈삼매경론〉을 통해 〈금강삼매경〉이 중국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웬량(張文良) 중국 인민대 교수는 '신라의 원효와 청량 징관'을 통해 중국 화엄종 4조 징관 스님이 원효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폈다.

장 교수는 "징관의 〈능가경〉과 〈대승기신론〉의 이해에 있어 원효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징관은 원효의 저작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상 전개의 계기와 근거로 삼았다"며 "원효의 사상은 징관이 자신의 화엄사상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해서 참고 · 수용했던 중요한 사상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리우청요우(劉成有) 중앙민족대 교수는 '원효의 일념사상설과 그 연원'을 통해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의 일념사상의 연원을 고찰했다.

리우 교수는 "원효의 일념사상은 〈대승기신론〉에 사상적 연원을 두고 있으며, 당시 시대의 소(疏)와 소해(疏解)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하지만, 원효만의 해석적 특징은 존재한다"면서 "원효의 해석에는 신역유식과 구역유식을 '화쟁' 하려한 적극적 시도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대승불교의 도덕론- 원효의 죄와 참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와 장쉐송(張雪松) 중국 인민대학 부교수의 '원효 율학 사상의 기초적 검토' 등이 발표됐으며, 김종욱 원장과 김영진 동국대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 연구단은 5, 6월 원효 스님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서 국제 학술대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특히 5월 동국대가 주최하는 '21세기 원효학의 의미와 전망-원효 찬술 문헌의 계보학적 성찰' 주의 학술대회에는 14명의 국 · 내외 석학들이 원효 스님을 종합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양철학자 눈으로 본 선불교

재독 학자 한병철 교수 〈선불교의 철학〉 번역서 발간



헤겔 · 니체 등 서양철학 이론과
임제 · 동산 등 선사들 통찰 비교

〈피로사회〉로 잘 알려진 재독 철학자 한병철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가 선불교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고찰한 저서가 발간됐다.

한 교수는 저서 〈선불교의 철학〉에서 서양철학자의 관점을 통해 선불교를 비교 · 고찰하고 있다. 기실 선불교의 핵심은 흔히 말과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경전과 다른 방식으로 전승된다는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 인간의 마음을 직접 인도하고 고유한 본성을 깨달아 부처가 된다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로 표현된다.

선(禪)은 논리,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이론과 담론을 적대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교수는 "좁은 의미의 철학에 속하지 않는 대상에 관해서도 철학적으로 반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선불교에 '관해서' 그리고 선불교와 '함께' 철학함으로서 '선불교의 철학'을 조명한다.

그는 플라톤, 라이프니츠, 헤겔, 니체, 쇼펜하우어 등 서양철학자들의 이론과 임제, 도오, 동산, 위산, 앙산, 운문, 원오, 도겐 등의 선사들의 수행적 통찰들을 비교하며 선불교가 가지는 사유의 면모를 찾아내고 있다.

한 교수는 책에서 선불교를 무, 공, 무아, 무주, 죽음, 자비 등 6가지 주제로 나눠 서양철학의 개념을 소개하고, 선불교와 비교한다.

실제, 헤겔은 종교의 대상을 '신'으로 규정한다. 기독교에서는 신은 '실체'이면서 '주체'이지만, 불교의 중심 개념 중 하나인 '무'는 배타적 주체성이 없다고 한 교수는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선불교의 무는 신적인 '저기'를 향하지 않고, 내재성으로, 즉 '여기'로 향한다"며 "'무'는 중심적 주체가 아니라 비어 있는 중심이며, 지배하는 중앙이 없기 때문에 주변도 없고, 존재자 모두가 중심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선불교는 다른 세계가 아닌 일상에 머물며, 깨달음은 일상, 즉 평범한 세계에서 깨어남을 강조하고 있음을 역설한 한 교수는 "깨어난 사람들은 특별한 '저기'가 아닌 '아주 오래된 여기'에, 깊은 내재성에 도달한다"면서 "선불교는 세계를 근원적으로 신뢰하는 세계종교"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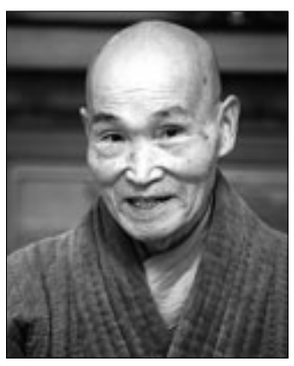
책을 따라 가다보면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 사유가 대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동양과 서양의 사유의 전통이 '다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동서양의 사유의 전통을 비교하며 선불교의 통찰을 만날 수 있는 점은 이 책이 갖는 중요한 의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근현대 선지식 수행 · 사상 조명 잇달아

용성 스님- 대각사상연구원 4월 7일 세미나
청화 스님- 청화사상연구회 4월 9일 세미나


용성 스님


청화 스님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과 청화 스님의 사상과 수행 면모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잇달아 열린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오는 4월 7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백용성 사상의 재인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평택 명법사가 주최 단체로 참여하는 이날 세미나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을 기념해 열리며, 총서의 발간 경위와 성격을 살펴보고, 백용성 사상의 개요를 심도있게 재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백용성 사상 계승에 헌신하고 있는 명법사 화정스님과 대각사상연구원이 뜻을 같이하여 개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세미나는 도문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죽림정사 조실)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총 5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발표로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경위 및 성격(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 백용성의 화엄과 선(이영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 백용성의 공사상(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 백용성, 만일참선결사회(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 백용성과 여성 수행(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등이 이뤄진다.

발제자들은 근대불교 시대에 불교의 쇠퇴를 극복하고 정체성을 찾고자 고뇌하였던 백용성 스님의 역사적 발자취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마성 스님 팔리문헌연구소장, 신해 스님,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신규탁 연세대 교수, 김성순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 스님(동국대 총장)은 "대각사상연구원은 백용성 스님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됐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스님의 역사적 위업이 현 세대에 잘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 이하 연구회)는 청화 스님이 주창한 염불선과 다른 제반 수행법을 비교 · 고찰하는 학술세미나를 4월 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개최한다.

'염불선과 제 수행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앙승가대 외래교수 법상 스님의 '염불선과 염불' △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염불선과 묵조선 · 간화선'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의 '염불선과 사마타 · 위빠사나'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동국대 외래교수 신해 스님, 최동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손병욱 경상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참석한다.

연구회 측은 세미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불교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염불선과 다른 제 수행법의 비교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불교의 수행풍토가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세미나 발제자로 참여하는 법상 스님은 "청화 선사는 간화선 이외는 용납되지 않는 현실에서 염불과 초기, 부파, 대승의 선정도 최상승선이며, 궁극의 경지와 일치한다는 점을 경론을 통해 입증했다"며 "염불과 선 수행이 바로 불심(佛心)이고 선심(禪心)이며 염심(念心)"이라고 강조했다.

청화 스님의 재가제자인 배광식 前 서울대 치대 교수는 "염불선과 제 수행법은 외견 상 다른 수행법으로 여겨지는 점도 없지 않고, 실제 차이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행복이나 궁극적 지향점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 · 세계 유산 인문 강좌 '눈길'

공주博, 3~11월 강좌 실시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규동)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2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성인 대상에 '박물관에서 만나는 인문학' 강좌를 3월부터 11월까지 개설 운영한다.

'한국의 불교미술과 세계유산'을 주제로 진행되는 연속 강좌는 3월 29일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한국 불교미술사'로 시작을 알렸다.

이후에는 △가톨릭 총본산 바티칸 시국을 가다(김용법 KBS2TV 감독) △불교조각(최성은 덕성여대 교수) △힌두교 예술, 앙코르와트(임헌갑 소설가) △불교공예(최응천 동국대 교수) △이슬람 예술, 알람브라궁전(이형준 사진작가) △불교건축(조원창 한얼문화유산연구원장) △실크로드의 불교미술, 석굴사원(민병훈 미술사학자) △불교회화(김정희 원광대 교수) 등 4월부터 11월까지 강의가 진행된다.

박물관에서 만나는 인문학 강좌 참여는 국립공주박물관 누리집 접수 및 당일 현장접수로도 참여할 수 있다.

강좌에 대해 국립공주박물관은 "불교, 기독교, 힌두교 등 종교에 대한 인류의 예술적 표현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법당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일부교체 및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진단, 설치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사찰 3곳만
방문 가능하오니, 초파일을 앞두고 미리 상담, 출장 예약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신상품 ● USB · MP3 PLAYER



보급가 : 145,000원(USB칩 포함)
엠프 스피커 포함 : 235,000원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자체에서 소리조절
오래된 엠프와도
잘 맞습니다.



● CD기기 (5개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1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